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다 창세기 41:37-57

지혜와 영적 통찰력 가지고 변함없이 성실한 요셉 총리 꿈을 가진 '우리'통해 구원역사 이루실 하나님

요셉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했고,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기도 했고, 한 여인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의 믿음의 절정은 용서에 있습니다. 그는 정말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명쾌하고 확실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왕은 그 꿈이 해석되지 않아 며칠동안 번민하고 괴로웠는데 요셉의 해석으로 번민이 해결되고, 애굽에 축복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쁨을 회복합니다.

희망과 꿈을 주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번민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해석을 들은 왕과 신하들은, 그 해석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제안한 것들에 감동받습니다. 37절을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놀랍게도 한 사람의 반대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순식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하나님의 해석이다'라고 공감합니다. 요셉이 제안한대로 정말 명석한 관리를 뽑아서 이 재앙과 흉년을 대비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메시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칠년동안의 풍년동안 잘 대비하여 칠년동안의 흉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왕과 신하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크리스천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누가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부정적이고, 고발하고, 절망적인 말만 하고 비난합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가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이야기 하는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볼 때, 그것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지도자도 참된 지도자는 아닙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지도자도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백성을 잘못 지도하고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미래에 다가올 재앙과 위기를 똑바로 보게 해 주는 지도자,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지도자,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확실하게 불어넣는 지도자입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입니다. 그가 요셉입니다. 바

로 왕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38절과 같이 말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는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뜻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 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생각 속에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영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영이, 세상적인 영이, 사탄의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롬 8장 5, 6 절은 이처럼 말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 대로 말합니다. 그 사람은 똑똑합니다. 유능합니다.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은 모두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요셉

요셉은 어렸을 때 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이복 형제들 가운데서 살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생각을 했고, 하나님 꿈을 꾸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억지로 끌고 와야 교회에 왔지만 어릴 때 부터 하나님 만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뜻도 모르고 성경을 외웁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외운 성경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사고의 일부가 됩니다. 그 젊은 날에 예수님께 빠지게 하고, 성경에 빠지게 하고, 교회에 빠지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요셉은 어릴 때 부터 하나님과 매우 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꿈을 꾸어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자랐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7세, 한창 반항할 수 있는 사춘기 시절에 그는 정직하고 의롭고 순종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물을 볼 때 예민하고,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적인 관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도 힘듭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쉬워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착한 일 하는 것이 쉬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세상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고, 30세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던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있던 감옥에 술 말

은 관원장과 떡 말은 관원장이 모함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떡 말은 관원은 모사꾼입니다. 술 말은 관원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온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즉각' 해석했습니다. 요셉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적인 것인지 금방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꿈의 해석은 이미 끝났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대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리있고 명쾌하게 말합니다. 암소 일곱 마리는 칠년, 그 좋고 아름다운 소는 풍년이며 야위고 여리고 흉악한 소는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사건이 여러분의 손에 들어오면 다 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특징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부릅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도 우리는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거절감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 당신은 빠져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요셉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밤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그냥 주무십시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고민을 너무 위대하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지성과 경험 뛰어넘어 하나님 신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단순하고 쉽습니다. 단순한 사람, 쉬운 사람이 되십시오. 복잡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랑은 단순한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한 것입니다. 용서도, 사랑도, 예수 믿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은 명철함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눅12장 54~5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롬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여, 나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영을 주옵소서! 요셉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공부하면서 깨닫어봐야 할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사물이 쉽게 해석됩니다. 39~40절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네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 뿐이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네가 나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여 온 국민에게 희망을 준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애굽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되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상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청년입니다. 30대입니다. 어제 만 해도 감옥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애굽 왕이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일이 가끔 벌어집니다. 신앙 안에서는 이러한 세계가 벌어 집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순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소리를 지 르는 순간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소년 다윗이 여호와 의 이름으로 돌팔매를 가지고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거인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3년 반동안 오지않던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지성과 인격과 상식과 합리성으로 이해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거 짓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 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말입 니까?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어디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났 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의 세계이며 상식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걷습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문둥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 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이것은 우리의 순수한 이성, 합리성, 지성의 도구로는 받 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가 공상소설이나 미친 사람의 이야기입 니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에 들어가야 합니 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요셉이 꿈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애굽 의 총리대신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복 받은 요셉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민족과 우리 인생을 봅니다. 모든 사물을 봅니다. 그래서 미래 를 볼 때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린아이처럼 나아간다면,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비 밀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에 대한 주제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희망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 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 해 이 민족을 구원하고, 온누리교회를 통해 이 시대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서 살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자신만 을 보지 마십시오. 자신만 보면 자살합니다. 자신을 너무 목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시 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41-43절을 보 십시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그의 인장 반지 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앞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 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나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고, 하 늘의 유산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 사건을 어찌 요셉이 총리대신 된 사건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건은 요셉이 총리된 사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사건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젖어서 이것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를 축원합니다. 44~45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넛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은 권력과 복된 하나님의 가정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위대함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었을 때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돈이 조금만 더 있어도, 지위가 조금만 올라가도 목이 곧아집니다. 그리고 높은 데 있다가 한 등급만 지위가 내려가도 코가 석 자나 빠집니다.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을 받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46~49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대 풍년이 왔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창고를 짓고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세금 20%씩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기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충실하게 준비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위기는 준비할 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요셉은 그가 죽을 때까지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한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요셉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었다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열 두 지파 가운데서 요셉만 두 지파가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년이나 흉년은 의미가 없습니다. 풍년이 와도, 흉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건강해도 병들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공이나 실패가 내게 의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병들 수도 있는 것이고, 부요할 수도,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꾸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수모와 수치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복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와 이 나라가 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셉은 어릴 때 부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자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굽총리로 있을 때나
변함없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들이 되도록 기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